

第10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開會式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0年5月22日(月) 午前 11時00分 開式

第100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11時00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100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洪承台** 친애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푸르름과 향긋한 꽃내음이 날로 더해가는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번에 열

리는 뜻깊은 제100회 임시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 첫해의 새해를 설렘과 희망 속에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제가 절기상으로 만물이 더위와 함께 서서히 영글기 시작한다는 소만(小滿)으로 이제 여름도 멀지 않은 듯 싶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일년중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생동감 있고 활발한 활동으로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로 구정(區政)업무에 있어서도 계획된 금년도 각종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7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을 전후하여 마련한 “종로가족 한마음 큰잔치”에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지방자치체가 10년 전에 부활되어 주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우리 종로구의회가 처음으로 개원되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한 지도 오늘로서 벌써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원하는 100회 임시회는 그 어느 집회와 다른 깊은 감회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임시회라

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법적·제도적 여건이 미미한 상태에서도 명예직으로서 오직 공지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정기회·임시회 등 총 99회의 회기를 통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승인, 각종 현안사항 등 주민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들을 730여 건 처리하였으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區政)현장의 확인을 통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생활의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해결하기 위해 그늘진 곳, 소외된 지역 등을 구석구석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목소리에 정중하게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의원들은 명예직으로서의 가족부양을 위한 생업활동과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및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활동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 등 1인 3역을 한다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어언 9년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주민이 대표로 선출한 지방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의 제한, 행정통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실시 등에 따른 제약, 예산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 한정 등 아직도 중앙집권시대의 불합리한 법령들과 제도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어 조속히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종로구의회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지방의회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제1회 집회부터 오늘 개최한 제100회 집회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3선 의원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뜻깊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개원 이래 100번째 맞이하는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으로 안전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멀지않아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수해방지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제100회 임시회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第100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2分 閉式)

○ 出席議員數 19人

○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